

##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유재남\*

###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본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대상은 1955년 부터 1963년 까지 베이비붐 세대 총 915명이다. 독립변수는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며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45.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인구학적 요인은 18.9%, 신체적 건강요인은 17.0%, 심리적 건강요인은 5.6%, 사회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3.5%를 설명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결정요인은 배우자 유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 고용여부, 소득수준, 심리적 건강상태, 노후준비여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객원교수

## I. 서론

2017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 집단으로 편입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세대의 고령인구로의 편입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 요인이며,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노인인구 규모보다 크다(통계청, 2016)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등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며 1960-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주역이었고 하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세대이며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혜택을 받은 세대이지만 한편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세대이기도 하다(조달호·최봉, 2015).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를 경험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베이비부머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것인가에 귀결된다(유주희·주운현, 2016)고 보고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명아 외, 2018; 김수영 외, 2016; 유주희·주운현, 2016; 유재남, 2015; 김시월·조향숙, 2013; 박창제, 2013; 노국래, 2012; 배정희, 2012)가 개인수준과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만 초점(유주희·주운현, 2016; 김수영 외, 2016)을 두었을 뿐 독립변수의 각각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이 중요한 이유는 각 요인별 설명력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신체적 건강 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기초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의 몇 %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인가?

둘째,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각각 얼마나 설명하며, 그 중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각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붐 세대 특성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변화기를 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2015년 기준 약 711만명이고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2020년부터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6). 또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2017년 기준으로 55세에서 63세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다(이창근 외, 2017).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간에도 교육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5년생의 베이비부머 고졸자는 38.3%, 1963년생의 경우 46.6%로 젊은 베이비부머가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내 출생 코호트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직업의 차이로 이어진다.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5년생의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율은 24.0%에 불과하지만 1963년생의 경우에는 33.7%에 달해 젊은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중 또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6: 40).

조달호·최봉(2015)의 연구에서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였던 베이비부머가 7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업별로 보면 사무종사자 32.2%, 서비스 종사자 15.4%, 판매종사자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경제적 상태(64.0%)와 건강상태(28.8%)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여가생활, 부부 및 가족관계, 친구 및 사회적 관계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는 78.4%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경험한 집단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년사회 진입은 향후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박명아 외, 2018: 136).

### 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개인수준의 연

구(박명아 외, 2018; 유주희·주운현, 2016; 유재남, 2015; 김시월·조향숙, 2013; 박창제, 2013)와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 연구(김수영 외, 2016; 배정희, 2012; 노국래, 2012)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개인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으나 김수영 외(2016)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구분하여 고령화 연구패널 데이터와 KOSIS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요인에서는 성별(여성), 사회경제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 기대감, 친한 사람과 교류 횟수, 문화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근로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체육시설 수와 의료기관 병상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개인 연구자마다 상이하지만 인구학적 요인,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수렴된다. 유재남(2015)의 연구에서 55세 이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건강요인, 참여요인, 보장요인으로 구분하고 주요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참여요인은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노동 참여, 보장요인은 소득수준과 주거보장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노동시장 참여, 소득수준 및 주거보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에서 이성규(2014)는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성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박순미·손지아·배성우, 2009; 박기남,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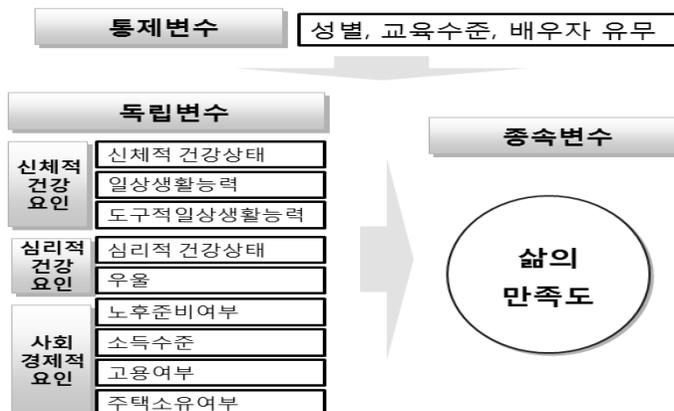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건강요인 또한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변수이다(Kobau et al., 2004; Sugisawa et al. 2002; 이동호, 2010; 박순미·손지아·배성우, 2009). 이동호(2010)의 연구는 독립변수 중에서 삶의 만족도를 어떤 요인이 가장 잘 설명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고, 박순미·손지아·배성우(2009)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Kobau et al.(2004)의 연구에서 심리적 요소인 우울은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전명숙·태명옥, 2016; Furnham & Argyle, 1998; Krause & Borawski, 1995; Diner et al., 1993)와 소득수준 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의식을 주요변수로 선정한 연구(김수영 외, 2016: 401), 베이비붐 세대 재무적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박명아 외, 2018; 박창제, 2013)가 진행되었다. 박명아 외(2018)의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는데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의 소득변수(금융소득, 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등)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전·후기 베이비붐세대는 금융자산과 가계총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명숙·태명옥(2016)의 연구는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순자산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유무와 주택소유 여부도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유재남, 2016; 김시월·조향숙, 2013; 한창근·조용운, 2011). 김시월·조향숙(2013)의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비취업자 보다 취업자가 높게 나타나 취업 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유재남(2016)의 연구는 주택의 자가소유 집단과 자가 비소유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자가소유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창근·조용운(2011)은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가주거 집단은 비자가주거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기존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삶의 만족도 원인변인으로 구분하고, 인구학적 요인의 하위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를 통해 측정하고, 건강요인은 신체적 건강요인과 심리적 건강요인으로 구분한다. 신체적 건강요인은 신체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도구적일상생활능력 변수이며, 심리적 건강요인은 심리적 건강상태와 우울 변수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후준비여부, 소득수준, 노동시장 참여 여부, 주택소유 여부로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구축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본조사와 4차년도 부가조사 데이터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1차 베이비붐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출생년도가 1955년생 부터 1963년생 까지인 연령을 대상으로 총 915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이고, 독립변수는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 1) 통제변수

노후보장패널데이터에서 원래 성별은 명목척도이나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를 위해 남성=1, 여성=0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졸 까지 1점부터 6점의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더미변수이며 유배우자=1, 무배우자=0이다.

##### 2) 독립변수

###### (1) 신체적 건강요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능력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과 관련된 7문항의 평균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은 몸단장하기, 집안 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와 관련된 10문항의 평균이 분석에 투입되었고 변수 값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상생활능력 및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은 Katz(1963)이 개발한 지표를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ADL과 Lawton과 Brody가 개발한 I-ADL을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IADL을 활용하였다(국민연금연구원, 2015. ver 6.0). 건

강요인인 일상생활능력은 신뢰도가 .979이고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은 .965로 나타났다.

(2) 심리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상태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동일하게 5점 척도이다.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를 조맹제 등(1993)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0점(극히 드물다), 1점(가끔 있다), 2점(종종 있었다), 3점(대부분 그랬다)으로 점수를 주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 점수를 주었다(국민연금연구원. 2015. ver 6.0). 심리상태인 우울은 총 20문항이고 신뢰도가 .871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노후준비 여부는 준비는 1, 미준비는 0으로 더미변수로 리코딩하였으며, 소득은 가계총소득을 로그변환하였다. 고용여부는 취업은 1, 비취업은 0으로 더미코딩 하였고, 주택소유 여부는 자가소유는 1, 미소유는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3)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다항목 측정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변수값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삶의 만족도 문항은 총 11개이며 신뢰도는 .838로 나타났다.

〈표 1〉 본 연구의 변수

구분	형태	변인	구분 및 척도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수준	무학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졸 6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1 무배우자=0
독립변수	신체적 건강요인	신체적 건강상태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은 편이다
		일상생활능력(ADL)	1=혼자서 할 수 있음
		도구적일상생활능력(IADL)	2=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3=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
		심리적 건강상태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은 편이다
	심리적 건강요인	우울	0=극히 드물다 1=가끔 있다 2=종종 있었다 3=대부분 그랬다
		사회·경제적 요인	노후준비 여부
	사회·경제적 요인	소득수준	로그변환
		고용여부	취업=1 비취업=0
주택소유여부		소유(자가)=1 비소유=0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 건강,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두 집단간 평균차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은 SPSS 23을 활용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의 분석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 298명(32.6%), 여자 617명(67.4%)이며, 학력은 무학 18명(1.7%), 초등학교 졸업 203명(22.4%), 중학교 졸업 235명(25.9%), 고등학교 졸업 353명(38.9%), 전문대 졸업 23명 (2.5%), 대학교 졸업 69명(7.6%), 대학원 졸업 10명(1.1%)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자 792명(86.6%), 무배우자 123명(13.4%)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취업상태는 588명(64.3%), 미취업 상태 327명(35.7%)으로 베이비 붐 세대 취업자는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노후준비가 된 경우 321명(34.4%)이며, 준비가 안된 경우 595명(65.6%)으로 65%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주택의 자가소유 338명(36.9%), 미소유 577명(63.1%)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인 신체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3.37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건강수준을 보였으며, ADL과 IADL은 각각 1.02와 1.05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일상생활능력과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은 대부분 건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상태 평균은 3.69로 나타났고 우울의 평균은 0.46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로그 변환한 소득의 평균은 17.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3.30으로 베이비붐 세대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특성

(단위 : 명/평균, %/표준편차)

	구분	N	빈도 / M	% / SD
성별	남자	915	298	32.6
	여자		617	67.4
교육수준	무학	908	18	1.7
	초등학교 졸업		203	22.4
	중학교 졸업		235	25.9
	고등학교 졸업		353	38.9
	전문대 졸업		23	2.5
	대학교 졸업		69	7.6
	대학원 졸업		10	1.1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915	792	86.6
	무배우자		123	13.4
취업 유무	취업	915	588	64.3
	미취업		327	35.7
노후준비 유무	준비	907	312	34.4
	미준비		595	65.6
주택소유 여부	소유	915	338	36.9
	미소유		577	63.1
신체적건강상태	신체적건강상태 평균	914	3.37	.875
ADL	ADL 평균	915	1.02	.168
IADL	IADL 평균	915	1.05	.231
심리적건강상태	심리적건강상태 평균	915	3.69	.763
우울	우울평균	910	.46	.424
소득	로그 변환	835	17.25	.807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 평균	891	3.30	.592

## 2.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검증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에 평균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균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t = .157, p > 0.05$ ).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인 집단과 고졸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 = 5.213, p < 0.001$ ). 배우자 유무 역시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간의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163, p<0.001$ ).

취업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결과 취업 집단과 미취업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399, p<0.001$ ). 노후준비 여부에 따라 준비한 집단과 준비하지 않은 집단 간에  $t=9.740(p<0.001)$ 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집단과 미소유한 집단 간 삶의 만족도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t=517, p>0.05$ ).

〈표 3〉 집단간 삶의 만족도 T-검증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성별	남성	287	3.31	.667	478.649	.157
	여성	604	3.30	.552		
교육 수준	고졸미만	439	3.19	.594	879.735	5.213***
	고졸이상	445	3.4	.573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776	3.39	.539	145.107	12.163***
	무배우자	115	2.70	.576		
취업 여부	취업	576	3.42	.554	607.460	8.399***
	미취업	315	3.08	.595		
노후준비 여부	준비	307	3.54	.498	728.085	9.740***
	미준비	578	3.17	.598		
주택소유 여부	소유	327	3.32	.615	647.672	.517
	비소유	564	3.29	.578		

\* $p<.05$ , \*\* $p<.01$ , \*\*\* $p<.001$

### 3.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모형1에 인구학적 요인, 모형2에 신체적 건강요인과 모형3에 심리적 건강요인, 모형4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투입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이 전체 몇 %를 차지하는지, 각 모형 단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F=53.415$ ,  $p<.001$ )하며 독립변수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약 절반 정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1은 삶의 만족도 설명력이 18.9%로  $F=42.348$ ( $p<.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beta=.014$ ,  $p>.05$ ) 성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 $\beta=.184$ ,  $p<.001$ )이며,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388$ ,  $p<.001$ ). 인구학적 요인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요인을 투입한 모형2는 17.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유의미( $F=73.746$ ,  $p<.001$ )하게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beta=.408$ ,  $p<.001$ ), 일상생활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071$ ,  $p>.05$ ).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이며( $\beta=-.114$ ,  $p<.05$ ), 변수간 상대적 영향력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도구적일상생활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요인을 투입한 모형3은 삶의 만족도를 5.6% 설명하고 있다( $F=69.817$ ,  $p<.001$ ). 구체적으로 심리적 건강상태와 우울 모두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나타냈다.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beta=.117$ ,  $p<.01$ ),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beta=-.211$ ,  $p<.001$ ). 두 변수 중에서 우울이 심리적 건강상태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4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설명력이 3.5%( $F=53.415$ ,  $p<.001$ )로 4개의 모형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집단은 준비되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beta=.087$ ,  $p<.01$ ),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beta=.102$ ,  $p<.01$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여부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집단이 미취업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beta=.132$ ,  $p<.001$ ). 주택소유여부는 삶의 만족도의 영향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1$ ,  $p>.05$ ).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고용여부, 소득수준, 노후준비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독립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각 모형의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  $\beta$ 값의 절대치를 통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형4의  $\beta$ 값 절대치 비교 결과 배우자유무( $\beta=.287$ ,  $p<.001$ ), 신체적 건강상태( $\beta=.228$ ,  $p<.001$ ), 우울( $\beta=-.179$ ,  $p<.001$ ), 고용여부( $\beta=.132$ ,  $p<.001$ ), 소득수준( $\beta=.102$ ,  $p<.01$ ), 심리적 건강상태( $\beta=.096$ ,  $p<.001$ ), 노후준비여부( $\beta=.087$ ,  $p<.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인구학적 요인	성별	.017	.014	-.010	-.008	-.001	-.001	-.053	-.042
	교육수준	.104	.184***	.055	.097**	.039	.69*	.028	.049
	배우자유무	.701	.388***	.611	.338***	.562	.311***	.519	.287***
신체적건강 요인	신체적 건강상태			.277	.408***	.186	.273***	.155	.228***
	ADL			.245	.071	.270	.078	.175	.051
	IADL			-.307	-.114*	-.195	-.072	-.112	-.041
심리적 건강 요인	심리적 건강상태					.092	.117**	.074	.096**
	우울					-.297	-.211***	-.252	-.179***
사회·경제적 요인	노후준비여부							.108	.087**
	소득수준							.077	.102**
	고용여부							.166	.132***
	주택소유여부							.013	.011
R2		.189		.359		.414		.450	
수정된 R2		.186		.354		.409		.441	
R2 변화량		.189		.170		.056		.035	
F		61.694***		73.746***		69.817***		53.415***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000		.000	

\* $p<.05$ , \*\* $p<.01$ , \*\*\* $p<.001$

## V.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1은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이 18.9%, 신체적 건강요인을 투입한 모형2는 17.0%, 심리적 건강요인을 투입한 모형3은 삶의 만족도를 5.6%, 사회·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4는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학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 각 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유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 고용여부, 소득수준, 심리적 건강상태, 노후준비여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방안은 무배우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건강, 고용, 소득보장, 노후준비에 대한 범주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무배우자 집단은 유배우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정(2018)의 연구에서도 무배우자인 베이비부머가 유배우자 베이비부머보다 빈곤율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빈곤정책, 건강보장정책, 고용정책 등 다차원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생애주기 중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증년기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만성질환 유병율이 점차 높아지며, 이미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만성기질환의 예방차원에서 지역 의료기반 구축정도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김수영·문경주·장수지, 2016).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의료기반을 잘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 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 고용정책 및 노인복지정책이 저학력·저소득층에 초점을 두었고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직업경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던 베이비부머 가운데 고용이 안정된 계층은 절반에 불과하고 빈곤위험도 높으므로 현금지원보다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지은정, 2018).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과 경력등을 감안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소득보장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은퇴를 앞둔 예비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고려한 복지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으므로, 공적연금의 수급기준이 낮거나 아예 수급에서 제외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에게는 직접적인 현금급여로서 수당지급 방안이 전체 예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속 방안들이 논의(김수영·문경주·장수지, 2016)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정책이다. 독일의 Volkshochschule(시민학교, VHS)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성인교육기관으로 도시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치·사회, 문화예술, 건강, 언어, 직업교육, 기본 학위교육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독일에서는 총 905개의 별도 VHS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기관으로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다(50+ 해외동향리포트, 2018). 독일의 사례는 베이비붐 세대 및 노년교육정책이 미흡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하여 사회공헌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제3기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 싶어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합하나 보편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고용, 교육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생산인구가 감소된 고령사회에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프로보노를 활성화 시키고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연구원. 2015. 유저가이드 ver. 6.0.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수영 · 문경주 · 장수지. 2016. “다층모형을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71(4): 391-421
- 김시월 · 조향숙. 2013. “베이비붐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비교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 노국래. 2012. “서울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남. 2005. “성별·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 10.
- 박명아 · 조시울·신혜리·박설우·김영선. 2018.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2): 133-166
- 박순미 · 손지아 · 배성우. 2009.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25(3): 1-24
- 박창제. 2013.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9: 115-138.
- 배정희. 2012. “도서지역의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재남. 2015.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분석”. 『노인복지연구』 . 68: 333-356
- 유재남. 2016.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6(4): 1075-1088
- 유주희 · 주운현. 2016. “베이비부머들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서울시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16(1): 77-111
- 이동호. 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 30(1): 93-108.
- 이성규. 2014.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 73-86
- 이창근 · 권정현 · 김지운 · 최동욱 · 김수한 · 김성지 · 정유경 · 홍주원. 2017. “베이비붐 세대 특성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KDI 최종보고서
- 전명숙 · 태명옥(2016).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여가 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232-333
- 조달호 · 최봉. 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 지은정. 2018.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 24(2): 365-391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동향”
- 한창근 · 조용운. 2011. “자가주거와 삶의 만족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장기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50+ 해외동향리포트. 2018. 서울시50플러스재단.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S.,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Furnham, A., & Argyle, M. 1998. *The psychology of money*. London: Routledge.
- Krause, N., & Borawski, C. E. 1995.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5(4), 498-508.
- Kobau, M. A., Safran, M. A., Zack, M. M., Moriarty, D. G., & Chapman, D. 2004. Sad blue, or depressed days, health behavio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1995-2000.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 2, 40.
- Sugisawa, H., Shibata, H., Houhham, G. W., Sugihara, Y., & Liang, J. 2002. The impacts of social 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U.S and Japanes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785-804.

Abstract

##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Yoo, Jae-nam

Visiti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 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s and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used the present survey and additional survey data for the fourth year of the National Geriatric Assurance Panel. The subjects were 915 baby boomers from 1955 to 1963. Independent variable is physical health factor, psychological health factor, socioeconomic factor, and dependent variable is life satisfaction. Analysis method was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analysis shows that 45.0%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s' life are explained. The explanatory power of life satisfaction was 18.9% in demographic factor, 17.0% in physical health factor, 5.6% in psychological health factor and 3.5% in social and economic factor.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 of life satisfaction was the presence of a spouse, followed by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psychological health status, and aging prepar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based on priorities that explain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physical health factors, psychological health factor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논문투고일: 2019.03.31, 심사일: 2019.05.12, 심사완료일: 2019.05.21]